



# 신문에서 읽는 효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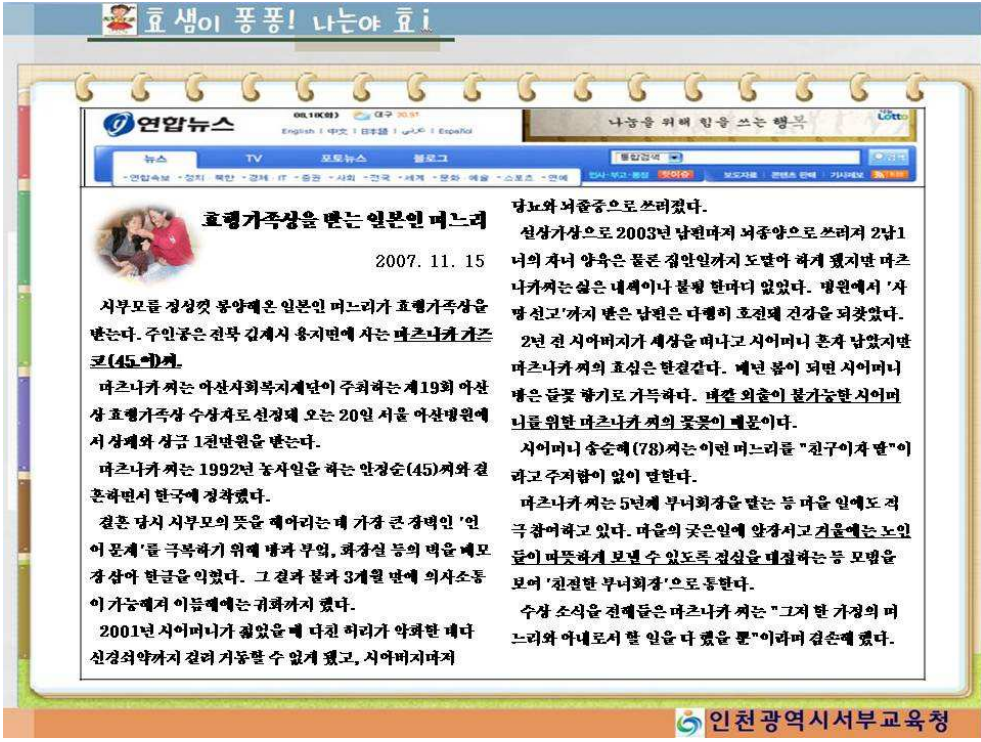
## ② 효행가족상 받는 일본인 며느리

활동유형	이야기 나누기	활동수준	II수준
<p><b>활동목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문에 나오는 효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.</li> <li>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.</li> </ul>			
<p><b>교육과정 관련요소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생활영역-가족과 함께 생활하기-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</li> <li>■ 언어생활영역-말하기-생각과 느낌 말하기</li> </ul>			
<p><b>활동자료 (CD 수록)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문 기사 내용 PPT </li> <li>• 활동지 </li> </ul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data-bbox="416 1014 793 1296"> </div> <div data-bbox="991 1014 1208 1301"> </div> </div>		
<h3>활동내용 및 방법</h3>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아들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이 기사를 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기 기사의 제목이 무엇인가요?</li> <li>- 여기 보이는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?</li> <li>- 오른쪽에 있는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나요?</li> <li>- 왜 이 두 사람이 신문에 실렸을까요?</li> </ul> </li> <li>▶ 신문기사의 내용을 들려준다.</li> <li>▶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인 며느리는 무슨 상을 받았나요?</li> <li>- 일본인 며느리가 효행가족상을 받게 되었나요?</li> <li>-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 며느리인 마츠나카씨가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?</li> </ul> </li> </ul>			

- 시어머니는 일본인 며느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?

▶ **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을 이야기 나눈다.**

- 우리 친구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
-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지낸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?
- 만약 '가족이 없다면~?' 마음이 어떨까?
- 일본인 며느리인 마츠타카 아즈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?

<p>활동평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문의 내용을 이해하는가?</li> <li>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가?</li> </ul>
<p>확장활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본인 며느리인 마츠타카 아즈마에게 그림편지를 써본다.</li> </ul>
<p>신문 기사 내용</p>	 <p><b>효행가족상을 받은 일본인 며느리</b> 2007. 11. 15</p> <p>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해온 일본인 며느리가 효행가족상을 받는다. 주인공은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사는 <b>마츠타카 아즈마(45세)씨</b>.</p> <p>마츠타카 씨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제19회 아산상 효행가족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20일 서울 아산재단에서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받는다.</p> <p>마츠타카 씨는 1992년 농사일을 하는 안정순(45)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.</p> <p>결혼 당시 시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데 가장 큰 장애인 '언어 문제'를 극복하기 위해 방과 수업, 화장실 등의 책을 메모장 삼아 한글을 익혔다. 그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이듬해에는 귀족까지 됐다.</p> <p>2001년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다친 허리가 악화한 데다 신경쇠약까지 걸려 가동할 수 없게 됐고, 시어머니마저 당뇨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.</p> <p>실상가상으로 2003년 남편마저 뇌종양으로 쓰러져 2남1녀의 자녀 양육은 물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됐지만 마츠타카 씨는 삶은 내색이나 불평 한마디 없었다. 병원에서 '사망 선고'까지 받은 남편은 다행히 호전돼 건강을 되찾았다.</p> <p>2년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지만 마츠타카 씨는 효심은 한결같다. 매년 봄이 되면 시어머니 병은 들꽃 향기도 가득하다. <b>내깎 외출이 불가능한 시어머니를 위한 마츠타카 씨의 꽃꽂이 예뻐 보인다.</b></p> <p>시어머니 송순애(78)씨는 이런 며느리를 "친구이자 딸"이라고 주저함이 없이 말한다.</p> <p>마츠타카 씨는 5년째 부녀회장을 맡는 등 마을 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. 마을의 굵은일에 앞장서고 겨울에는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점심을 배달하는 등 모범을 보여 '진정한 부녀회장'으로 통한다.</p> <p>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마츠타카 씨는 "그저 할 가정의 며느리와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"이라며 겸손해 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</p>